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이신영*

〈국문초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화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관하여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비교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적인 성공적 노화 인식은 여성과 남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요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여성인 경우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연구의 함의, 제한점, 추후 연구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공적 노화,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 자아존중감, 성별 인식차이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ylee@kmu.ac.kr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2010): pp.99-130

© 201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화와 정의 전체적인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화의 다른 측면들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노화에 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노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화는 감퇴를 시사하기도 하지만, 다소 중립적 의미의 변화도 나타내며, 발달과 성숙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Rowe & Kahn, 1998). 노화과정에 따라 인지적 기능이나 감각적 기능 등과 같이 쇠퇴의 국면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삶의 지혜와 같이 점차 늘어나는 발달도 존재한다(성기일 외, 2010).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개념은 성공적 노화이다.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회의 주제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1987년 Rowe와 Kahn은 보통의 노화와 성공적 노화의 구별을 제안하였다. 성공적 노화는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겨오던 일반적 노화를 개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Rowe & Kahn, 1998).

서구의 연구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통해 성공적 노화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는데,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집중하다가 점차 심리적 특성으로, 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 및 경제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Torres, 2002).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성공적 노화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성공적인 노화 개념 설정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성공적 노화의 척도개발 연구들(김미혜·신경림,

2005; 성혜영·유정현, 2002)이 등장하였다. 이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김미혜 외, 2006; 백지은·최혜경, 2005)이 발표되었다. 또한 Rowe와 Kahn의 모델을 활용한 연구(성혜영·조희선, 2006)와 SOC 모델을 활용한 연구(하정연·오윤자, 2003)들도 진행되었다.

한편 노화는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성공적 노화를 생애주기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행해져왔다(Crosnoe & Elder, 2002; Schulz & Heckhausen, 1996). 성공적인 노화는 일생을 통한 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해되므로 노년세대뿐 아니라 청소년세대의 성공적 노화인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미래노인인 청년층과 중년층이 성공적 노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노화를 보낼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이창식, 2007; 정순둘, 2007b).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 인식 연구에서 벗어나 세대별로 인식 차이를 연구하는 논문들(강인, 2003; 박경란·이영숙, 2002; 이창식, 2007; 정순둘, 2007b)이 발표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도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은 다르게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노년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과 건강상태가 낮지만, 남성에 비해 사회참여율이 높다(Zick & Holden, 2000). 한국에서도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여성특유의 건강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 홀로 사는 경우의 외로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등 여성노인과 남성노인들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기존의 정의들은 성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Wray, 2003). 이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성별로 인한 차이와 공통점을 연구하고 있는 논문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서구에서는 18세 이상의 703명을 대상으

로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하여 성별차이를 연구하였으며(Dillaway & Byrnes, 2007), 국내에서는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인, 2003; 정순돌, 2007b)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정순돌, 2007a)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을 성별로 나누어 그 차이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인식

성공적 노화는 관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는데, 의료적 관점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기능을 강조하며, 심리사회적 관점은 잠재력의 실현, 심리적·사회적 안녕, 삶의 만족, 적응, 생산성, 자기통제 등을 강조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노년에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Bowling, 2008).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는 신체적,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등 다차원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helan et al., 2004). 학자들은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Glass(2003)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면에서의 기능유지, 삶의 질, 질병이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측면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Chou와 Chi(2002)는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인지적인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를 포함하여 4개의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Freund와 Baltes(1998)는 성공적인 노화를 긍정적인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성취하고, 부정적인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성공적인 노화의 주관적인 지표로서 나이듦에 만족, 긍정적 정서, 외롭지 않음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이용했다. Featherman et al.(1990)은 적응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인 노화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고, 사회가 존중하는 유행 세력에 적응, 재형성하는 방식들, 그리고 한 사회의 노인에게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정신, 신체, 지역 사회의 조건을 반영하는 사회심리적, 과정적 구성으로 정의하였다. Snow와 Pan(2004)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는 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와 강한 사회관계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죽음에 대한 수용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대처능력의 발휘 등도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였다.

다양한 인종을 포함하는 42개의 포커스그룹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나타난 주요 주제는 오래 사는 것, 건강한 신체, 정신적 건강, 기억력,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Laditka et al., 2009). 38명의 캐나다의 이누잇족(Inuit)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인식 탐구를 위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건강상태가 아니라 노화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것 즉, 축적된 지혜와 지식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보고되었다(Collings, 2001). 65세 이상 재가노인 33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 여가와 사회활동, 정신활동, 사회적 관계와 접촉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owling,

2008). 타이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족과 사회의 지지, 통제력, 건강, 인생을 즐김, 자발성 등 5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Hsu,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김미혜 외(2004)는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공통적 속성을 ‘복’으로 봤으며, 부부, 자식, 친구, 재산, 여가, 건강, 죽음 등 9개의 복으로 설명하였다. 최혜경 외(2005)는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노인에게 성공적인 삶은 중용으로서의 삶, 자식에게 투영된 삶, 내 한 몸 추스르는 삶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함으로서 건강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현방·최혜경(2003)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성공적인 노화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죽음을 수용하며,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심리적인 발달 과정이며, 또한 정신, 신체상의 질병이 없어 기능적이며 사회관계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의 연구 등을 살펴볼 때 학자에 따라 정의와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적극적 인생참여모델과 SOC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적극적 인생참여 모델에 근거하여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이라는 주제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온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질병 및 장애와 관련된 위험 수준이 낮을 것, 높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할 것,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태도를 지닐 것 등 세 가지 요소들이 요구되는데, 이 특성들을 유지하는 능력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다. 한편 Baltes와 Baltes(1990)는 SOC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사람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selection)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적정화(optimization)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

해 부족함을 보상(compensation)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란 선택과 보상 과정들이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일차적 통제를 최대화 하도록 도울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적극적 인생참여모델은 양적이며 실제적 행동적 측면을 강조함에 따라 수퍼노인을 연상하게 되며 젊은이와 같아지기를 바램으로써 노화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으며 심리적 측면을 등한시하였다. 반면에 SOC모델은 질적이고 주관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보존된 기능을 활용하거나 대체기능을 이용하여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노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및 개인의 자원에 대한 시각이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한국인에게 맞는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김미혜·신경립(2005)은 전문가 집단과 노인 포커스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등을 포함한 5단계 척도개발 과정을 진행하여 총30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백지은·최혜경(2005)은 31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등으로 명명하였다. 강인(2003)은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비형식적 자유응답식 질문을 사용하여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의 6개 요인을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측정도구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가 개발되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학자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적극적 노화(active aging)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연구자(Bowling, 2008)가

있는 반면, 성공은 실패를 함축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해 최적의 노화(optimal aging)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Baltes & Baltes, 1990), 성공적이라는 단어의 잠재적인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잘 늙는 것(aging we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Laberge & Albert, 2004). 이처럼 성공적 노화를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의할 수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성공적 노화는 적극적 노화, 잘 늙음, 생산적 노화, 통합적 노화 등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성공적 노화를 채택하였다.

2)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무엇으로 기준하느냐에 따라 영향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독립적 생활의 가능여부를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성으로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보다 다른 가족원 혹은 기관의 원조를 받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Ford et al., 2000). 노인이 보유한 자원을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제시한 연구에서는 자원이 가장 부족한 집단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Baltes & Lang, 1997). 다른 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실패하는 노인의 특징이 환경적 자원 접근성 부족으로 나타났다(Scheidt et al., 1999). 한편 개인에 의해 조절 가능하지 않은 변인(예를 들면 부모의 사회적 계층, 가족 응집력, 우울증, 유전적 수명, 아동기의 기질)과 개인에 의해 조절 가능한 변인들(예를 들면 알코올중독, 흡연, 결혼 안정성, 운동, 신체 건강 정도, 교육 등)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졌다(Vaillant & Mukamal, 2001).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삶의 질로 보고 65세에서 84세 사이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한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성격 특질, 복지적 측면 등이 확인되었다(Guse & Masesar, 1999). 65세 이상 미국거주 일본인과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요인으로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적 요인 등 14개를 발견하였는데, 두 인종 간에 13개 요인들은 일치하였으나 백인들은 일본인에 비해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Phelan et al., 2004). 1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사회경험, 대처전략, 즐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학습이 성공적 노화과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Duay & Bryan, 2006). Reker(2004)는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을 비교하였는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으로 사회적 자원과 생의 목적이 발견되었고, 재가노인에게는 종교성, 시설노인에게 성별이 영향 변인이었다.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지은·최혜경(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기간, 배우자여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순으로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혜영·유정현(2002)은 경제력, 가족관계, 질병 예방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정연·오윤자(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 학력, 종교, 결혼연수, 경제적 상황이 의미 있는 변수들이었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선·원영신(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운동, 영양보충, 종교,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관계형성, 바쁜 일상생활, 규칙적인 생활 등 7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김미혜 외(2006)는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한 이상근접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배우자, 건강, 소득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중에서도 배우자 유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종교

성과 성공적인 노화는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홍현방, 2002), 생활양식과 식사습관도 성공적인 노화와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였다(홍현방, 2003). 또한 홍현방(2005)은 생산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생산 활동을 유급의 경제활동, 공식 활동(투표 참여정도,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에서의 참여정도, 가입단체 참여정도, 자원봉사활동 정도), 비공식활동(친구 만나기, 가사일 참여하기, 성인자녀 도와주기, 취미생활)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회귀분석결과 용돈, 건강,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참여가 의미 있는 변인들이었다.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만(백지은·최혜경, 2005),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을 비교한 정순들(2007a)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평가와 주관적 경제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다.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영성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주관적 건강평가가 좋을수록,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다.

세대별로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박경란과 이영숙(2002)은 남녀 대학생과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자율이며, 그 중 건강의 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생은 자율 중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2003)은 성공적인 노화의 지각에 관해 노년기(65세-87세), 중년기(41-57세), 청년기(19-23세) 여성 각자 35명씩 105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노년기 여성의 경우 신체적 건강,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개인성장 순으로 지각하는데 반하여, 청년기 여성은 성공적 노화를 개인성장, 자율성, 정서적 안녕,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지향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정순들(2007b)은 청년(만 30세 미만), 중년(30-64세), 노년(65세 이상)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공적 노화를 비교한 결과, 중년층의 인식이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높았다. 또한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종교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쳤고, 노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경제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식(2007)은 청소년세대(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207명과 노인세대(60세 이상) 149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 연구한 결과, 노인세대에서는 성별과 일상생활동작 능력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 차이를 보인 반면, 청년세대는 성별, 연령, 생활수준, 조부모와의 친밀감 등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이 달라졌다.

노년기는 노화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고 재적응해야하는 시기이다. 변화에 대처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관리의 역할(role of management)은 성공적 노화이론에서 SOC모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시되어왔다(Hilton et al., 2009).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강화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추며,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었다(Krause, 1987).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우울, 생활만족도,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귀분 외, 1998).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체험 즉 긍정적 태도, 유머감각, 자기수용, 행복감 등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였으며, 특히 변화를 관리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통제감이 성공적 노화의 중요 요인임이 보고되었다(Hilton et al., 2009). 국내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여성노인의 경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반면, 남성노인에게에는 영향

력이 없는 변수로 나타났다(정순돌, 2007a).

3.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해 조사대상은 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에 의하여 연구표본을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육을 거친 조사원들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조사 일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한 달간 진행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연령 층이 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직장, 대학교, 노인대학, 경로당, 교회를 중심으로 직접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대상자는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조사자가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서 총 540부를 배부하여 518부가 회수되었다.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0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생활수준을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변수로, '매우 나쁘다'에서 '매우 좋다'까지 1~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양호

하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변수로, '매우 어렵다'에서 '매우 좋다'까지 1~5점을 부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김미혜·신경림(2005)¹⁾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등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915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 척도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는 SPSS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증)이 사용되었다. 성별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평균차이분석(t or F 검증)을 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 인식에의 영향요인을 알기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1) successful aging 은 우리나라의 학자들 사이에 성공적 노화 또는 성공적 노후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김미혜와 신경림은 연구에서 성공적 노후 단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4.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성은 295명(58.4%), 남성은 210명(41.6%)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29세가 19.4%, 30-39세가 18.7%, 40-49세 20.8%, 50-59세 17.5%, 60세 이상이 23.6%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66.5%, 미혼이 28.3%, 기타 5.2%로 나타났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았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12.4%, 부부만 사는 경우가 19.6%, 자녀 또는 부모와 사는 경우가 68%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가 13.2%, 중졸 11.9%, 고졸 36.0%, 대졸 38.9%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26.0%, 불교 26.8%, 기독교 25.8%, 천주교 18.1%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약 85%가 보통이거나 건강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보통이 65.9%였으며, 어렵다가 18.9%로 여유있다 15.1%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거주형태를 제외하고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여성(N=295)	남성(N=210)	전체(N=505)	교차분석
		명(%)	명(%)	명(%)	
연령	20-29세	55(18.6)	43(20.6)	98(19.4)	$\chi^2=4.320$
	30-39세	63(21.4)	31(14.8)	94(18.7)	
	40-49세	60(20.3)	45(21.5)	105(20.8)	
	50-59세	53(18.0)	35(16.7)	88(17.5)	
	60세 이상	64(21.7)	55(26.3)	119(23.6)	
결혼 상태	기혼	192(65.5)	141(67.8)	333(66.5)	$\chi^2=3.856$
	미혼	81(27.6)	61(29.3)	142(28.3)	
	기타	20(6.8)	6(2.9)	26(5.2)	
거주 형태	독거	35(12.0)	27(13.0)	62(12.4)	$\chi^2=7.269^*$
	부부	46(15.8)	52(25.0)	98(19.6)	
	가족동거	211(72.3)	129(62.0)	340(68.0)	
학력	초졸이하	45(15.6)	20(9.7)	65(13.2)	$\chi^2=3.693$
	중졸	33(11.5)	26(12.6)	59(11.9)	
	고졸	101(35.1)	77(37.4)	178(36.0)	
	대졸 이상	109(37.8)	83(40.3)	192(38.9)	
종교	없음	77(26.3)	52(25.5)	29(26.0)	$\chi^2=1.625$
	불교	82(28.0)	51(25.0)	133(26.8)	
	기독교	70(23.9)	58(28.4)	128(25.8)	
	천주교	53(18.1)	37(41.1)	90(18.1)	
	기타	11(3.8)	6(2.9)	17(3.4)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쁘다	46(15.8)	31(14.8)	77(15.4)	$\chi^2=.768$
	보통	144(49.3)	97(46.4)	241(48.1)	
	건강하다	102(34.9)	81(38.8)	183(36.5)	
주관적 생활 수준	어렵다	48(16.4)	47(22.5)	95(18.9)	$\chi^2=3.001$
	보통	200(68.3)	131(62.7)	331(65.9)	
	여유있다	45(15.4)	31(14.8)	76(15.1)	

* $p < .05$

2)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비교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수준은 5점 만점에 여성이 평균 3.72, 남성이 3.7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하위척도별 차이를 보면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603$, $p<.05$). 즉 남성($M=3.75$)이 여성($M=3.68$)보다 성공적 노화에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 성공적 노화 인식

변수	항목	여성	남성	t 값
		M(SD)	M(SD)	
성공적 노화	전체	3.72(.65)	3.70(.66)	1.391
성공적 노화 하위영역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3.67(.62)	3.64(.76)	.232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3.72(.91)	3.62(.90)	.180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3.68(1.10)	3.75(.96)	4.603*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3.82(.69)	3.79(.69)	.172

* $p<.05$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은 연령($F=4.431, p<.01$)과 주관적 건강상태($F=15.718, p<.001$), 주관적 생활수준($F=9.675,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은 경우,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이 성공적 노화에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반자적인 삶은 연령($F=6.217, p<.001$), 학력($t=7.48, p<.01$), 동거여부($t=51.519, p<.001$), 결혼관계($t=31.441, p<.001$), 건강상태($F=10.538, p<.001$), 생활수준($F=7.195,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하는 경우, 기혼인 경우,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동반자적인 삶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은 주관적 건강상태($F=8.808, p<.001$)와 주관적 생활수준($F=3.075,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와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변수	항목	자기효능감 S(MD)	자녀성공 S(MD)	동반자 S(MD)	자기통제 S(MD)
연령	20-29세	3.87(.53)	3.81(1.03)	4.09(1.06)	3.99(.62)
	30-39세	3.74(.60)	3.56(1.17)	3.91(.98)	3.79(.71)
	40-49세	3.73(.58)	3.68(.80)	3.66(.96)	3.84(.81)
	50-59세	3.57(.62)	3.71(.73)	3.67(.83)	3.82(.62)
	60세 이상	3.44(.66)	3.81(.79)	3.16(1.36)	3.67(.69)
	F 값	4.431**	.694	6.217***	1.651
학력	중졸이하	3.34(.59)	3.67(.78)	3.13(1.24)	3.57(.69)
	고졸이상	3.77(.58)	3.74(.94)	3.86(.98)	3.89(.67)
	t 값	.142	1.545	7.480**	.068
종교 유무	없다	3.66(.60)	3.74(.85)	3.69(1.06)	3.80(.70)
	있다	3.71(.63)	3.71(1.04)	3.73(1.18)	3.88(.67)
	t 값	.592	1.566	.868	.003
동거여부	예	3.69(.60)	3.70(.91)	3.78(.97)	3.81(.69)
	아니오	3.59(.71)	3.94(.87)	3.09(1.66)	3.93(.64)
	t 값	1.608	.469	51.519***	1.591
결혼관계	미혼	3.71(.59)	3.79(.97)	3.64(1.41)	3.87(.64)
	기혼	3.64(.61)	3.69(.86)	3.71(.89)	3.79(.71)
	t 값	.000	.008	31.441***	1.109
주관적 건강상태	나쁜편	3.54(.70)	3.77(.86)	3.46(1.15)	3.77(.75)
	보통	3.52(.61)	3.68(.92)	3.49(1.19)	3.68(.71)
	좋은편	3.93(.48)	3.78(.88)	4.09(.75)	4.04(.53)
	F 값	15.718***	.420	10.538***	8.808***
주관적 생활수준	어렵다	3.44(.67)	3.60(.81)	3.45(1.12)	3.67(.72)
	보통	3.65(.57)	3.71(.92)	3.62(1.12)	3.81(.68)
	여유있다	3.98(.59)	3.93(.88)	4.23(.70)	4.01(.59)
	F 값	9.675***	1.439	7.195***	3.075*

*p<.05, **p<.01, ***p<.001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은 연령($F=3.461, p<.01$)과 건강상태($F=4.239,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이 성공적 노화에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반자적인 삶은 연령($F=4.400, p<.01$), 학력($t=8.664, p<.01$), 동거여부($t=3.905, p<.05$), 결혼관계($t=9.628, p<.01$), 건강상태($F=3.758, p<.05$), 생활수준($F=4.142,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하지 않는 경우, 기혼인 경우,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동반자적인 삶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은 주관적 생활수준($F=5.887,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변수	항목	자기효능감 S(MD)	자녀성공 S(MD)	동반자 S(MD)	자기통제 S(MD)
연령	20-29세	3.99(1.25)	3.89(1.03)	4.11(1.11)	4.01(.59)
	30-39세	3.68(.54)	3.39(1.14)	4.14(.71)	3.87(.68)
	40-49세	3.66(.51)	3.62(.73)	3.67(.81)	3.67(.75)
	50-59세	3.45(.47)	3.41(.73)	3.66(.68)	3.81(.61)
	60세 이상	3.46(.66)	3.64(.81)	3.43(1.10)	3.66(.75)
	F 값	3.461**	1.697	4.400**	2.084
학력	중졸이하	3.39(.68)	3.52(.87)	3.33(1.14)	3.58(.74)
	고졸이상	3.71(.78)	3.65(.91)	3.88(.87)	3.85(.67)
	t 값	.680	.034	8.664**	1.865
종교 유무	없다	3.65(.82)	3.64(.87)	3.74(1.00)	3.78(.69)
	있다	3.59(.63)	3.53(1.02)	3.80(.88)	3.82(.73)
	t 값	.012	1.419	.651	.108
동거여부	예	3.65(.78)	3.63(.89)	3.75(.91)	3.79(.70)
	아니오	3.56(.64)	3.57(1.01)	3.76(1.29)	3.81(.64)
	t 값	.186	.697	3.905*	.582
결혼관계	미혼	3.77(1.09)	3.74(1.03)	3.87(1.22)	3.88(.69)
	기혼	3.58(.56)	3.58(.79)	3.73(.80)	3.75(.69)
	t 값	1.658	2.645	9.628**	.039
주관적 건강상태	나쁜편	3.40(.64)	3.64(.80)	3.47(1.22)	3.66(.82)
	보통	3.57(.55)	3.56(.87)	3.66(.97)	3.74(.71)
	좋은편	3.82(.98)	3.68(.98)	3.97(.80)	3.90(.61)
	F 값	4.239*	.298	3.758*	1.910
주관적 생활수준	어렵다	3.46(.71)	3.57(.87)	3.59(1.15)	3.63(.76)
	보통	3.66(.82)	3.57(.87)	3.71(.89)	3.77(.66)
	여유있다	3.82(.55)	3.88(1.06)	4.22(.78)	4.18(.62)
	F 값	2.292	1.199	4.142*	5.887**

*p<.05, **p<.01

4)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성공적 노화이며, 독립변수는 연령, 학력,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동거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등 8개 변수이다.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성의 경우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714$, $p<.001$),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13.9%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beta=.205$), 주관적 생활수준($\beta=.145$), 자아존중감($\beta=.193$)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954$, $p<.001$),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12.9%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239$)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여성			남성		
	B	S.E	β	B	S.E	β
연령	-.003	.004	-.085	-.007	.005	-.196
학력	.120	.053	.205*	.046	.067	.070
종교유무	-.019	.089	-.013	.074	.117	.048
배우자유무	-.041	.106	-.031	-.013	.171	-.009
동거여부	-.154	.142	-.079	-.078	.168	-.040
건강상태	.054	.064	.058	.093	.079	.097
생활수준	.161	.075	.145*	.115	.095	.103
자아존중감	.365	.118	.193**	.468	.149	.239**
	상수 B=2.412*** R ² =.168 수정된 R ² =.139 F=5.714***			상수 B=2.427*** R ² =.173 수정된 R ² =.129 F=3.954***		

*p<.05, **p<.01, ***p<.001

가변수: 종교유무: 없다=0, 있다=1, 배우자유무: 없다=0, 있다=1,

동거여부: 비동거=0, 동거=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 295명, 남성 210명 등 총 505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공적 노화 인식이 다소 높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는 다르지만 정순돌(2007a)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하위척도별 인식수준의 차이를 보면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성공적 노화에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2007a)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의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들은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 성공적 노화라고 인식한 반면, 남성노인들은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성공적 노화에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들과 차이를 보였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주로 생산성, 자기효능감, 개인적인 통제를 중요시하는 서구와는(Baltes & Baltes, 1990; Row & Kahn, 1998) 달리, 동양에서는 가족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창식(2007)의 연구에서 청소년세대와 노인세대 모두 부부관계가 좋아야 성공적 노화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세대와 노년세대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하고 원만한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한 강인(2003)의 연구에서 노인여성은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녕, 가족지향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한 반면에, 청소년여성들은 개인의 성장, 통제, 자율성을 더 중시하였다. 이는 대상자와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유추된다. 노부부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부부동반자적 관계의 질 또한 중요해지므로 배우자 관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사회적 관계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도 요구된다.

둘째, 본 조사에서 연령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젊을수록 성공적 노화인식 수준이 높았다. 강인(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수록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이 높았으나, 반면에 정순돌(2007b)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청년층, 노년층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의 경우는 성공적 노화에 대해 젊었을 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노년기가 되었어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대상자와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로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셋째, 본 조사에서 여성의 경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과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경제력은 다른 연구들(김미혜 외, 2006; 성혜영·유정현, 2002; 하정연·오윤자, 2003)에서도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백지은·최혜경, 2005).

경제적 안정은 다양한 삶의 활동기회를 높여주어 성공적 노화를 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Chou & Chi, 2002).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성공적 노화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Laberge & Albert, 2004),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공적 노후 형태와 관련이 있었다(Crosnoe & Elder, 2002). 이창식(2007)의 연구에서 노년세대는 관련이 없었지만 청소년세대는 생활수준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2007a)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에게 건강과 경제상태가 중요한 변인인 반면, 남성노인은 건강은 유의미하였지만 경제상태는 영향력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남성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아 여성노인들처럼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성공적 노화의 영향변인이 자

자존중감이 나타났다. 정순돌(2007a)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지만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은 영향력이 없었다.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 자존감은 남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eitzes & Mutran, 1995). 이런 차이는 표본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변화를 관리하여 재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노화는 일생을 통한 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해되므로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일찍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청년기나 청년기의 삶과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노화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경제 상태는 특히 여성들에게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었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들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 및 연금제도의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부부관계 나아가 가족관계 등 친밀한 관계적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기초가 됨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년시절부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조사가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이며 편의적인 표

집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이 각 성별, 세대별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는 대상자를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거주자도 포함하며, 사회·심리적 요인 및 가족적 요인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므로 질적 연구도 병행하여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 2010. 4. 23 게재확정: 2010. 5. 19)

참고문헌

-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20권, 95-116쪽.
- 고대선·원영신(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4권, 413-424쪽.
- 김귀분·송기숙·석소현(2008), “노인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한국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1호, 65-74쪽.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4권 2호, 79-95쪽.
-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5권 2호, 35-52쪽.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6),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6권 1호, 91-104쪽.

- 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2권 3호, 53-66쪽.
- 백지은·최혜경(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3호, 1-16쪽.
- 성기월·이신영·박종한(2010), “한국노인의 지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30권 1호, 65-80쪽.
- 성혜영·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2권 2호, 75-93쪽.
- 성혜영·조희선(2006),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6권 1호, 105-123쪽.
- 이창식(2007), “성공적 노화에 대한 청소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2권 3호, 85-107쪽.
- 정순돌(2007a),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7권 4호, 829-845쪽.
- (2007b), “한국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36권, 201-220쪽.
-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2호, 1-10쪽.
- 하정연·오윤자(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략 관련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131-144쪽.
-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2권 3호, 245-259쪽.

_____ (2003),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21권, 49-72쪽.

_____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29권, 203-235쪽.

홍현방·최혜경(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145-154쪽.

Baltes, M. M. and F. R. Lang(1997), “Everyday functioning and successful aging: The impact of resources”, *Psychology and Aging*, 12(3), pp.433-443.

Baltes, P. B. and M. M. Baltes(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wling, A. (2008), “Enhancing later life: How older people perceive active ageing?”, *Aging & Mental Health*, 12(3), pp.293-301.

Chou, K. L. and I. Chi(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pp.1-13.

Collings, P. (2001), “If you got everything, it's good enough: Perspectives in successful aging in a Canadian Inuit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 pp.27-155.

Crosnoe, R. and G. H. Elder Jr.(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pp.309-328.

Dillway, H. and M. Byrnes(2007), “Attitudes about successful aging

- in Michigan communiti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aper, pp.1-22.
- Duay, D. L. and V. C. Bryan(2006), “Senior adult's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32, pp.423-445.
- Featherman, D. L., Smith, J., and J. G. Peterson(1990), “Successful aging in a post-retired society”, In Baltes, P. B. and Baltes, M. M.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50-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d, A. B., Haug, M. R., Stange, K. C., Gaines, A. D., Noelker, L. S., and P. Jones(2000), “Sustained personal autonomy: A measure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Aging & Health*, 12(4), pp.470-489.
- Freund, A. M. and P. B. Baltes(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indicator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3(4), pp.531-543.
- Glass, T. A. (2003), “Assessing the success of successful ag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9(5), pp.382-383.
- Guse, L. W. and M. A. Masesar(1999), “Quality of life and successful aging in long-term care: Perceptions of resident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0(6), pp.27-539.
- Hilton, J. M., Kopera-Frye, K. and A. Krave(2009), “Successful 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caregivers”, *The Family Journal :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7(1), pp.39-50.
- Hsu, H. (2007), “Exploring elderly people's perspectives in successful

- ageing in Taiwan”, *Ageing and Society*, 27(1), pp.87-102.
-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4), pp.349-356.
- Laberge, S. and M. Albert(2004), “Conceptions of aging well among women seniors from underprivileged and affluent communiti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pp.1-22.
- Laditka, S., Corwin, S., Sharkey, J. and S. Ivey(2009), “Attitudes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s: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Gerontologist*, 49, pp.S30-S39.
- Phelan, E., Anderson, L., LaCroix A. and E. Larson(2004),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pp.211-216.
- Reitzes, D. C. and E. J. Murtran(1995), “Multiple roles and identities: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mong middle-aged working men and woma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pp.313-325.
- Reker, G. T. (2004), “Prospective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residing and institutionalized Canadian elderly”, *Ageing International*, 27(1), pp.42-64.
- Rowe, J. W. and R. L. Kahn(1998), *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화』, 최혜경, 권유경 옮김, 서울: 학지사, 2001.
- Scheidt, R. J., Humphreys, D. R. and J. B. Yorganson(1999), “Successful aging: What is not to lik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8(3), pp.277-282.
- Schulz, R. and J. Heckhausen(1996), “A life span model of

-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pp.702-714.
- Snow, L. S. and C. X. Pan(2004), “How do physicians think about successful ag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40(10), p.852.
-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pp.417-431.
- Vaillant, G. E. and K. Mukamal(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sychiatry*, 158(6), pp.839-847.
- Wray, S. (2003), “Woman growing older: Agency, ethnicity and culture”, *Sociology*, 37, pp.511-528.
- Zick, C. D. and K. Holden(2000), “An assessment of the wealth holdings of recent widow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 pp.S90-S9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between Women and Men

Shin-Young Le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between women and men, and to find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The respondents were 505 people residing in the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as frequency, chi-square test, t-test, anova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successful aging was not different between women and men. But couple life like companion was very important in successful aging among the males. Second, education, economic living conditions,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mong the females. Third, self-esteem was significant predictor for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mong the male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recommendations for the policy were presented.

Key words: successful aging, couple life like companion, self-esteem, different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between women and men